3월 둘째주 회의록 - 제출완료

작성자 : 안성열

참여자: 김상윤, 민태식, 안성열

회의일정

• 3/9 PM 4:30 ~ 5:30, PM 6:45 ~ 8:30

• 3/11 PM 4:00 ~ 5:00

회의 안건

- 허대영 교수님과의 면담 후 프로젝트 세부 조정
 - "여론수렴"에 초점을 맞출 것. 응용방안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태도를 취할 것 → 우리는 이러한 기능을 만들었다. 기능을 응용한 효과로는,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결정할 때 여론을 신경쓰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. 라고만 말할 것
 - 소외계층, 노령계층 에게서 공청회와 같이 직접적인 의견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
 - 청소년 :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의 도구로 활용 가능
 - 장애인 : 장애인 관련 법안에서 직접적인 의사를 얻을 수 있음
 - 노령층 :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집에서 의사결정 가능
 - 법안 요약 AI 모델의 퀄리티가 중요함 → AI 모델이 메인인지 서브 기술인지 정해라.
 - 팀원을 구인하기로 결정. → 여의치 않는다면 서브 기술로 두고 구색만 맞추는 정도로 구현하자
 - 팀원 구인 실패
 - 법안의 히스토리 기능이 매우 핵심이다. 투표 후 멘션을 남기는 기능은 별로다.
 - 히스토리 기능에 대한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
 - 멘션을 남기는 기능은 삭제. 대신 링크를 딸 수 있는 기능을 추가

- 머지데이 정하기
 - 매주 일요일 오전 : 금주의 진행상황 보고 + 개발된 기능이 있다면 머지와 테스트 진행
- 테스팅 플랫폼 구축하기
 - 안드로이드 공기계로 테스트 진행 → 김상윤이 구해오기
- 개발 계획 수립하기
 - 。 전체적인 프로세스 상상하여 기록하기
 - 。 세부 기능 프로세스 상상하여 기록하기
 - 기능들의 우선순위 정하기 → 1순위 기능부터 구현하기

세부 개발 계획

김상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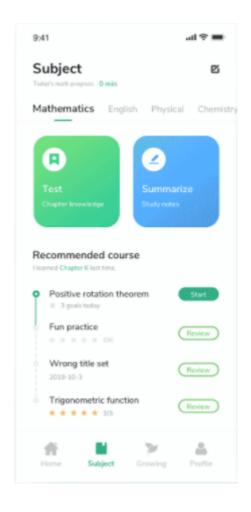
- 크롤링 API 구현 \rightarrow DB 설치 \rightarrow 서버설립 \rightarrow 크롤링 API와 서버 연동 \rightarrow DB에 데이터 저장 \rightarrow DB의 데이터를 프론트로 넘길 수 있는지 확인 \rightarrow 블록체인 API와 통신이 되는 지 확인
- '국민참여입법센터'의 [진행] 태그가 붙은 정보를 주기적으로 크롤링한다.
- 서버는 Node.js 를 사용한다. 현재 크롤링 자체는 파이썬의 BeatifulSoup 모듈을 사용할 예정이다.
- DB는 Mongo DB를 사용한다. 추후에 서버와 DB 모두 AWS를 돌릴 예정이다.

민태식

- 메인기능
 - 。 최신 법안순으로 리스트화
 - head는 투표 가능 법안
 - FlatList 방식 사용
 - 선택 법안 투표 → 데이터를 서버로 보냄
 - 투표가 종료된 법안 → 투표자에게 노티 + 원 그래프

• 서브기능

- 。 법안 태그 분류
- 관심법안 → 상단 블럭화
- ㅇ 법안 진척도에 따라 색 변화
- 법안의 속칭을 먼저 사용
- 。 법안 히스토리 : Swipe 방식



안성열

- 핵심 서버 기능
 - <voting_store>
 - 사용자가 투표 기능을 사용했을 때 자동호출
 - {사용자정보 : 법안고유id : 찬반} 데이터 생성
 - 생성된 데이터로 <blockchain_store> 호출
 - < voting_load>
 - 법안의 투표기간이 종료된 경우 자동호출
 - {법안고유id} 로 <blockchain_store> 호출
 - {사용자정보 : 법안고유id : 찬반} ⇒ {사용자정보}, {찬반} 으로 분리
 - 법안의 투표기능 비활성화
 - 법안의 그래프 기능 활성화

- {찬반} 으로 원 그래프 생성
- {사용자정보} 로 <voting_noti> 호출
- - {입력 데이터} == {스마트 컨트랙트의 입력}
 -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
- o <blockchain search>
 - 입력 데이터와 일치하는 정보를 모두 반환
 - Return Value : <u>{사용자정보 : 법안고유id : 찬반}</u>
- 서브 서버 기능
 - o <voting_noti>

작성자 한줄평

안성열: 3/14부터 핵심기능 우선 개발에 들어간다. 2달간의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사회적 문제가 해결가능하고 원하는 기술스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어서 기쁘다. 다 만, AI를 다룰 수 있는 팀원이 한명 필요하다.